

# 담배규제 현황

## 현 학 철

### KT&G 중앙연구원 화학부

담배는 약 500년전에 콜롬부스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된 이후, 초기에는 의학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품위유지의 일환으로 상류층에서 주로 애용되었으며, 현재에는 대중화되어 인간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기호품으로 정착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학에서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담배소비 증가, 의학의 한 분야로서 역학연구가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어 따라 흡연위생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 초, 영국의 Doll과 Hill의 흡연과 관련한 역학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래로 흡연유해성이 부각되면서, 공중보건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규제가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정부차원의 규제에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EU Directive 등 국가를 초월한 범세계적인 담배규제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규제정도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규제추세는 담배산업 및 담배회사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01년에 유럽연합(EU) 이사회 및 의회는 회원국간의 담배 수 출입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향후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간의 담배 규제 법령을 통일하도록 하는 이행지침인 EU Directive 승인하였다. 이 지침에는 니코틴, 타르, CO 등 연기성분, 첨가물, 포장지 표기, 독성검사 등 현재보다 강화된 담배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예견되는 규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EU Directive의 내용 및 세계 주요국의 담배규제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